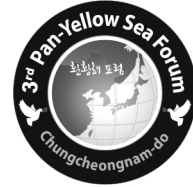


PROGRAM



제3회

황해포럼

3rd Pan-Yellow Sea Forum

2017년 11월 2일(목)~11월 3일(금)

공주아트센터 고마

Nov. 2(Thu) - 3(Fri), 2017
Gongju Art Center GOMA

주최 ·  충청남도 주관 ·  동아시아재단 East Asia Foundation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후원 ·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제3회
호남황해포럼
3rd Pan-Yellow Sea Forum

Contents

韓國語	3
English	23

韓國語



프로그램

2017년 11월 2일(목) ~11월 3일(금)

공주아트센터 고마

날짜	시 간	프로그램	
11월 2일 (목)	09:00-09:30	등록	
	09:30-10:10	개회식	개회사 : 안희정 (충남도지사) 축 사 :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 환영사 :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
		기조연설	기조연설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10:10-11:40	특별세션 1	한-중 관계 개선과 환황해 평화 사 회 :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기조발제 : 안희정 (충남도지사) 토 론 : 김성한 (한양대 특훈교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신정승 (동서대학교 석좌교수, 중국연구센터 소장, 전 주중 한국 대사) 장후이지 (길림대학교 한반도연구소 원장)
	11:40-13:00	공식 오찬	
	13:00-14:30	본세션	평화1]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과 실현 방안 사 회 :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부교수) 발 표 : 김중대 (국회의원, 정의당) 로버트 칼린 (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 정지용 (중국 복단대학교 한국학센터 센터장)
			평화2] 역사 갈등 해소를 위한 환황해 전략 사 회 : 김은숙 (한국교원대 교수) 발 표 : 우메노 마사노부 (조에츠 교육대학 부학장 및 이사) 판은쉬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연구소 부연구원) 윤용혁 (공주대 명예교수)
	14:30-14:50	휴식	
	14:50-16:20	본세션	번영1]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 지방정부의 역할 사 회 :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발 표 :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자오유푸 (산둥대학교 동북아연구센터 센터장) 미츠이 이치토모 (가에츠대학 대학원 대학원장 및 교수)
			번영2] 환황해 시대를 여는 항만 인프라와 교통 네트워크 연계 전략 사 회 :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북방경제연구단장) 발 표 : 김시곤 (서울과기대 교수) 송시귀 (중국 위해항무그룹 부사장) 아라이 히로후미 (일본 동북아경제연구소 연구부장, 수석연구위원) 토 론 : 강태호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16:20-16:40	휴식	



날짜	시 간	프로그램	
2일차 11월 3일 (금)	16:40-18:10	본세션	<p>공생1] 황해지역 수산자원 공동관리와 이용 협력방안 사 회 :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 발 표 :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장이항 (전 UNDP/GEF 황해광역해양생태계 프로젝트 매니저) 하마다 에이지 (시모노세키 시립대학 교수) 토 론 : 오운열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p> <hr/> <p>공생2] 대기질 향상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방안 사 회 : 박재목 (대전세종연구원 원장) 발 표 : 명형남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왕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지구 및 지구경제연구소 조교수) 미노우라 히로아키 (일본 아시아대기오염연구센터 대기연구부장) 토 론 :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센터장)</p>
	18:10-18:30	휴식	
	18:30-20:30	공식 만찬	
2일차 11월 3일 (금)	09:30-10:50	특별세션 2	<p>지방소멸의 시대, 지역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 사 회 : 강명구 (서울대 교수) 발 표 : 임승관 (생활문화공동체 문화바람 대표) 판레이 (전 송장미술관 관장) 노리아키 이마이 (認定 NPO 법인 DxP 이사장) 토 론 : 김종구 (이화여대 조소과 교수) 임옥상 (화가, 세계문화자연연구소 대표) 조미수 (폴울림 공동대표, 전 Peace Boat 공동대표)</p>
	10:50-11:10	휴식	
	11:10-12:30	특별세션 3	<p>한중일 싱크탱크 협력 지속 방안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사 회 :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 토 론 : 정초시 (충북연구원 원장) 평젠창 (허베이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왕싱궈 (산둥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고우이웅 (귀주성 사회과학원 대외경제연구소장) 다즈강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 정일지 (구마모토현립대학 거주환경학과 교수)</p>
	12:30	폐회 오찬	



개회사

도민 여러분, 국내외 귀빈 여러분 환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환황해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청남도는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2015년과 2016년에 환황해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올해 세 번째로 포럼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지방정부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동북아시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난 세기 제국주의와 냉전으로 인한 갈등을 아직 극복하지 못한데다, 국제질서의 변화, 북한의 계속된 도발까지 겹쳐 안보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첫걸음으로 ‘환황해 지역협력’이라는 새로운 길을 제안합니다. 지난 세기 동북아시아가 경험한 불신과 대립이 아닌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21세기에는 평화와 협력만이 새로운 번영을 약속할 것입니다. 환황해권에 ‘이익과 희망의 공동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뿌리내리는 데 힘을 모읍시다.

우선은 지역의 시민들과 지방정부들 간에 협력의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꾸준히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확대되어 결국은 환동중국해, 환북극해로 확산되는 세계적인 협력의 띠를 구성(構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물론이고 동북아 및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를 평화적으로 이끌어야 할 공동의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후손들을 위해 시대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이 포럼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노력이 결국은 이 지역과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각국에서 함께해주신 지도자분들과 석학들께서 환황해권의 평화와 번영, 공생을 위한 좋은 협력 방안을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는 환황해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충청남도지사

안 희 정



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시아 평화공동체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3회 환황해 포럼」이 민족의 영산인 계룡산과 유네스코세계유산인 백제유적을 품고 있는 이곳 공주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느덧 세 번째로 뜻깊은 본 포럼을 마련해 주신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님과 공로명 동아시아 재단 이사장님, 강현수 충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의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하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님, 오시덕 공주시장님, 해외 교류 단체장님들을 비롯한 많은 내외 귀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환황해’를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 충남의 미래이자,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 역사의 오랜 경쟁자이자 협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북한의 무력도발이 지속되면서 국가 간 군사·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아시아의 각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우호증진 방안을 모색하며, 공동번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고민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환황해권은 이미, 금융·기술·인프라 등 글로벌 경제의 심장부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국가들은 서로간의 경쟁이 아닌 공조에 무게를 두어야만 합니다. 또한 각 국의 지방정부는 분야별로 강점과 보완점이 공존하므로 서로 협력을 공고히 다져간다면, 동반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쪼록,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공생’을 도모하게 될 ‘환황해포럼’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해 나가며, 동아시아 번영을 약속하는 계기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2.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 석 우



기조연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환황해 평화 구상¹⁾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보좌관)

제3회 환황해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포럼에서 기조강연의 기회를 가지게 되어 저로서는 더 할 나위 없는 영광입니다. 사실 저는 작년 2회에 이어 연속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포럼의 미래지향적 비전, 풍부하고 창의적인 내용, 그리고 참가자들의 다양성과 격조 높은 수준 등에 깊은 감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 포럼을 구상하신 안희정 지사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안 지사님의 비전, 리더십, 그리고 열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도민은 물론 이번 포럼을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반도는 전쟁과 평화라는 교차로에 다시 서 있습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 이후 가장 첨예한 안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金正은의 핵 야망과 무모한 군사 도발, 도널드 트럼프의 공세적인 수사와 군사 행보,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강경 기조, 여기에 안보 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양극화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매우 위중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이러한 안보 딜레마에 봉착해 왔던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엄격히 말해 북한의 막무가내 식 핵 야욕에서 비롯됐다 할 것입니다.

북한은 핵보유국인가?

그러면 북한 핵 야욕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북한의 핵 능력입니다. 북한은 스스로를 핵보유국가로 선언하고 있습니다만 국제법적으로는 핵보유국이 될 수 없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르면, 북한을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1) 충청남도 주최 제3회 환황해포럼 기조연설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객관적 관점에서 북한이 상당한 핵무기 능력을 확보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음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북한은 꾸준히 핵물질을 생산, 비축해왔고 현재 대략 1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핵무기 전문가이며 영변 핵시설을 여섯 차례 방문한 바 있는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에 따르면 북한이 4-8기의 플루토늄급 핵탄두와 6-20기의 고농축 우라늄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확보하였으며, 연간 최대 1기의 플루토늄급 탄두와 6기의 고농축 우라늄 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이미 60기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²⁾ 북한의 핵 개발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2020년까지 1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핵무기 보유의 핵심인 핵탄두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둘째, 북한은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다양한 운반수단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스커드 B와 C 미사일(사거리 300km-500km), 노동(사거리 1,000km) 미사일,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사거리 3,000km) 등이 그 대표 사례들입니다. 지난 5월과 9월에는 화성 12호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그리고 7월 4일과 28일에는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4호를 실험 발사하기도 했습니다.金正은의 말처럼, 북한은 ICBM 개발의 “최종 단계”에 와 있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확보도 우려됩니다.

셋째, 북한은 2006년 9월 이래 6번의 핵실험을 했고 그 중 5번을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다섯 번의 핵실험 파괴력은 25 킬로톤 미만으로, 1945년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했던 9월 3일 핵실험의 위력은 100킬로톤을 넘어서는 파괴력을 보인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핵무기 다양화(분열성폭탄, 강화분열성폭탄, 수소폭탄), 소형화, 경량화를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핵무기 양산을 위한 표준화에도 성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2)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north-korea-now-making-missile-ready-nuclear-weapons-us-analysts-say/2017/08/08/e14b882a-7b6b-11e7-9d08-b79f191668ed_story.html?utm_term=.14a8a80ad80a.

핵탄두와 운반 능력 확보, 핵실험, 핵무기 기술의 고도화 등을 통해 조망할 때 북한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핵보유국 지위에 다다르고 있다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병진노선(경제 발전과 핵무기 개발 동시 추구)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최소한의 핵억지력(minimal nuclear deterrence) 확보뿐 아니라 북한의 수령, 제도,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김정은의 국내정치적 정통성 함양과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도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보유국 북한을 용인할 수 없는 이유

북핵 위협은 더 이상 허구가 아닌 현실이며, 미래 시제가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 다가와 있습니다. 북핵은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핵보유국 북한을 용인 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북한 핵무기는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파괴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신뢰구축과 평화 공존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반도에 엄청난 재래식 및 핵군비 경쟁도 초래할 것입니다.
- 북한이 군사력 우위를 점하게 되면 북 지도부는 남한 적화통일을 시도하려 했던 과거의 ‘통일 전선전략’을 부활시키려 할 것입니다. 북한노동당 규약 전문에도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통일전선 전략을 포기하지 않았고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세를 갖게 되면 이 전략을 강화시켜 나갈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단지 북한의 환상으로만 돌리기에는 현실이 너무 엄중합니다.
- 역내 안보 환경에 지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보유는 역내 전략적 불안정성의 심화는 물론 심각한 군비경쟁을 촉발하면서 핵도미노 현상을 통한 동북아 핵확산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북한이 다른 나라에 핵물질, 기술, 심지어 탄두를 수출할 수도 있으며 이는 글로벌 테러리즘 시대에 세계 안보의 근간을 흔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라도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가화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론적 명제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전략: 대화와 협상, 제재와 압박, 그리고 억지와 방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2대 원칙과 3대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핵을 가진 북한과 평화 공존할 수 없고 북한의 핵 야욕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두번째 원칙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며 북핵문제는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사전상의 및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군사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확실히 했습니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군사적 행위 및 전쟁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3대 전략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바로 대화와 협상, 제재와 압박, 그리고 억지와 방어입니다.

문 대통령의 첫 번째 전략적 선택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도 대화와 협상이 갖는 내재적인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고, 북미 양자 대화 및 6자회담 실패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이 끊어진 소통 채널을 복원, 의미 있는 대화와 협상을 재개할 것을 바라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6자회담 재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양자 대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합니다. 이미 북한에게 인도주의 차원의 적십자회담과 DMZ를 따라 흐르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군사 대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국제 사회 제재의 틀 안에서 비정부 차원의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재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북핵 문제는 북미 양자 대화를 통해 일차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남북대화의 재개는 이러한 북핵 대화에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재와 대화는 양립 할 수 없다’는 종래의 입장을 고집하며 우리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영호 북한 외무상은 러시아국영방송인 TASS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남한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과 제재 및 압박에 순응하는 굴욕적인 행태를 멈춰야 한다. 중요한 것은 남한이 외세의 공격과 간섭을 끝내기 위한 범민족적 협력과 수단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³⁾ 쉽게 말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동조하는 한 남측과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 뿐 아닙니다. 북한은 UN 안보리 결의안들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 차례의 지하 핵실험과 10번의 탄도 미사일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도발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모든 형태의 대화를 바라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제재와 최대한의 압박’이 대안적 전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UN안보리의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끌어 내는 데 미국, 일본(등)과 긴밀히 공조해왔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비롯한 미국의 독자 제재에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의 5.24 조치 (대북 교류 및 협력 금지),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조치 등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재와 압박은 분명히 차선책입니다만 현재 북한의 태도로 보아 달리 방법이 없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재인 정부는 군사적 억지와 미사일 방어를 중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억지는 보복 타격의 능력, 의도, 그리고 의지를 선명하게 보여줌으로서 적으로 하여금 군사 도발을 못하도록 하는 군사전략의 하나입니다. 이 전략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한-미 연합전력과 한국의 자주적 방위태세 강화를 통한 재래식 전력의 억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확장억지와 그에 따른 핵우산 공여를 통한 핵 억지입니다. 억지는 주권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군사전략이라 하겠습니다.

미사일 방어 또한 군사 전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극적 방어 (active defense 패트리어트 및 사드 시스템, KAMD), 소극적 방어 (passive defense 월별 국가 방어 훈련), 공세적 방어 (offensive defense 킬체인 및 대규모 응징 보복 조치), 그리고 전장 관리 (battle management 지휘, 통제, 통신, 정보, 정찰, 감시)가 바로 그 것입니다.

3) <http://tass.com/world/964395/>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강압 (compellence)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압이란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사용으로 북한의 행동에 변화를 주기 위한 전략입니다. 억지가 수동적인 행위인 반면, 강압은 강압외교를 통한 적극적인 방식입니다. B1B, B-2, B-52 등의 전략 폭격기, 항공모함 전투단,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등의 한반도 전개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강압은 미국의 핵심 전략인 반면, 한국은 여기에 소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 3대 전략이 얼핏 모순적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항상 대화와 협상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화와 협상도 상황 변화에 따라 다른 옵션들과 병행해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문 대통령에게 강압, 제재와 압박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3 Nos’: 반핵, 반 군사조치, 반 정권교체

위에서 언급한 3대 전략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세 가지 점에 대한 반대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반핵, 반 군사조치, 반 정권교체’라는 ‘3 Nos’가 바로 그 것입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독자적 핵무장을 반대합니다. 국민들 중 많은 분들이 북핵 위협을 잠재우기 위해 독자적 핵무장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확장억지라는 개념 하에 제공되는 미국의 핵우산은 ‘찢어진 핵우산’이며 따라서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기로 무장해야 만 북한에 대한 핵억제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 둘 것은 미국의 확장억지와 핵우산 공여 의지는 의심의 여지없이 확고합니다. 더 최악인 것은 만일 한국이 핵무장 의지를 천명하게 되면 곧바로 심각한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초토화 될 것이고 미국과 이어온 전통적인 동맹관계도 허물어질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국제사회 제재에 부딪힐 것이고 결국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또, 한국의 핵무장은 동북아 전체에의 핵 도미노 현상에 불을 당길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문재인 정부가 핵 옵션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미국 국민들의 전반적인 정서를 감안 할 때, 핵무장한 동북아는 미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핵무장한 일본과 한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기란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은 동북아에서 동맹을 잃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동북아 지역의 “패권적” 영향력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핵무장한 일본과 한국이 미국에 맹목적으로 순응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입니다.

일부 한국 논객들은 독자적인 핵무장이 어렵다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고 공유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핵무기를 남한 땅에 들여오면 이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북한 핵무기 및 개발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 요구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핵 재배치는 또한 동북아 내 심각한 핵 군비경쟁을 초래할 것입니다. 핵탄두를 들여오게 되면 이 또한 한국민들의 안전에 새로운 위협을 초래할 것이고 대북 역지에 있어 확산 및 오판의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일부 고위 인사들이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는 있지만, 전략, 전술, 예산, 그리고 병참 상 요인들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두번째, 문재인 정부는 그것이 선제적이건 예방차원이건 어떠한 군사 행동도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군사조치에 의해 한반도 분쟁이 촉발되면 불가능하진 않지만 이를 억제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이 한반도에 가져올 인명 피해 및 경제적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북한 장사포 사정거리 안에 엄청난 수의 국민이 살고 있고 미사일 사정권에는 전 세계 최대 경제 대국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전쟁으로 한국, 아시아, 전 세계가 잃게 될 것은 너무나 큼니다. 반대로 북한은 잃을 것도 별로 없고 결사 항전할 것입니다. 그럼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군사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군사, 정치적 목표 달성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공격에 대비해 여기저기 은밀하게 지하병커에 배치된 북한의 핵자산 (핵시설, 핵물질, 핵탄두)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강력한 지휘통제 시스템을 감안할 때, 북한의 정치 수뇌부를 지정 제거하는 것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북한의 대규모 보복 능력과 후속적인 군사 분쟁 악화로 인해 남한 내에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뒤 따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지도부 제거를 통한 정권 교체에도 반대합니다. 지난 7월 6일 베를린 연설을 비롯해 여러 차례 연설을 통해 문 대통령은 북한의 정권교체나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생각들이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이러한



방식이 상호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며 북한의 적대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 또한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바로 자주 주권국가로서의 북한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군부 또는 군-당 집단지도 체제가 들어서서 김정은 정권과 같은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중들의 저항이 김정은 정권의 급작스런 종말을 가져올 수 있지만 현 시점에 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인 정부가 북한 지도부 및 정권 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억지와 방어의 핵심은 공군력

북한이 UN 안보리 제재 결의를 계속 어기는 한 제재와 압박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인 정부는 미국과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에 대해 보다 강력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의 여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윌리엄 페리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 기고를 통해 “선 대화, 후 압박”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합니다. 북한에 대한 관여, 대화, 협상이 여전히 북한을 다루는 데 가장 신뢰할만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박근혜의 ‘신뢰 외교’는 결론적으로 실패한 정책입니다. 관여와 대화보다는 압박과 제재 쪽에 무게가 실렸고 이로 인해 상호 신뢰 구축의 기반이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실패가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미국과 북한 두 나라 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술한 적대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바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어떻게 최대한 능동적으로 끌고 나가느냐는 미국에 달렸습니다. 여기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필요한 설전을 피해야 합니다.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밖에 선택이 없다” “본인과 정권을 위한 자살 미션을 수행 중인 리틀 로켓맨”과 같은 적대적 수사는 역효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열고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악마화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근과 채찍을 유연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동맹국들, 중국, 러시아, UN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하나의 통일된 대북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전 세계를 향해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분명하면서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책 ‘The Art of Deal’ 에서 밝힌 생각을 북한을 다루는데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현재 문제인 정부가 처한 안보 환경은 엄중합니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이를 극복해 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차분히 실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환황해 포럼 같은 지방정부의 노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평화와 번영은 하나님의 축복처럼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래로 부터의 간절한 소망과 진정한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충청남도가 내걸고 있는 환황해 구상과 포럼을 통한 노력은 문제인 정부에 더할 나위 없는 지원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서해에 남북한 간 평화 협력지대가 만들어져 우발적 군사충돌이 예방되고 공동 어로사업이 가능해 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황해에서 역내 국가들의 해상 훈련이 사라지고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분야에 있어서 전방위적 교류와 협력이 증진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공동번영, 그리고 조화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그게 충청남도가 꿈꾸는 것이자 문제인 정부가 꿈꾸는 것입니다. 이제 환황해 평화와 공동 번영이라는 공동 분모는 마련되었습니다. 충남도와 중앙정부가 같이 협력할 일만 남았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제3회 환황해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충청남도, 충남발전 연구원과 동아시아재단의 헌신적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소개



김홍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김홍규 박사는 현재 중국정책연구소 소장과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겸하고 있다. 미국의 미시건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거친 그는 외교안보 연구원 교수를 역임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전문위원, 한중친선협회 자문위원 및 중 전문가공동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성환
한양대 특훈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전장관은 직업외교관 출신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김 전장관은 외교부에서 36년 여 동안 재직하면서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외교부차관 등 다양한 고위직 업무를 맡아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대표해 활동하였으며 주 오스트리아 대사 겸 빈 국제기구대표부 대사와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로 재임하였다.

김 전장관은 2012년 7월에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이 구성한 'Post-2015 개발의제를 위한 UN 고위급패널'의 일원으로 임명되어 2015년 이후의 개발협력목표를 작성하기 위한 논의에 참여하였다. 김 전장관은 외교부에서 퇴임한 후 2015년 3월까지 서울대 글로벌사회 공헌단장과 국제대학원 초빙석좌교수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한양대 국제학부 특훈교수와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정승
동서대학교 석좌교수, 중국연구센터 소장, 전 주중 한국 대사

신정승 전 주중 대사는 현재 동서대학교 석좌교수 겸 중국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이외에도 현재 우송솔브리지 대학 교수, NGO 단체인 미래숲 사무총장과 민간 문화재단인 Platform-L Art

Center의 이사장직도 맡고 있다. 그는 주 미국 대사관 1등 서기관, 주일본 대사관 참사관, 뉴질랜드 대사 그리고 중국 대사를 마지막으로 2010년 현직에서 은퇴하였다.



장후이지
길림대학교 한반도연구소 원장

장후이지는 길림대학교 동북아 연구소 교수, 부학장, 조선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고있다. 길림대학 세계경제학 기관(2002-2008)에서 부교수로 지냈다. 또한, 길림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및 석사를 받았고, 경희대학교에서 박사 학위(2004)를 받았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부교수

존 델러리는 연세대학교 국제대학과 국제대학원 소속 부교수이다. 현대중국 역사학자이며, 오빌 셀과 「돈과 힘」(2013)을 출판하였으며, 이는 중국어, 일본어 및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또한 그는 북한을 네 번 방문하였고, Foreign Affairs, 38 North,

그리고 그가 편집자로 있는 Global Asia 등에 정기적으로 기고하는 등 한반도 이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미중관계 및 북한 국가위원회 위원, 아시아소사이어티, 태평양세기연구소, 및 중국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을 겸임 중이다. 예일대학교에서 역사학 전공으로 학사와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1950년대 미중관계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



김종대
국회의원, 정의당

김종대는 현재 20대 국회의원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자, 정의당 원내대변인,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 본부장을 겸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여, 제14, 15, 16대 국회 국방위원회 보좌관(북풍대응팀 전담),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인

수위원회 안보분과 행정관,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방전문위원, 대통령 비서실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국무총리실 비상기획위원회 혁신기획관,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육·공군 본부 정책 발원위원, 국방부 병영혁신위원회 위원, 군인권센터 운영위원, 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 월간 <군사저널> <디엔디포커스> <디펜스21+> 편집장 등을 역임하였다.



로버트 칼린
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

로버트 칼린은 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의 객원연구원이다. 그는 1974년부터 북한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조야의 인물이다. 그는 1994북미기조협약체결의 수행을 위해 결성된 컨소시엄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정치 보좌관(2002-2006)을

역임하였다. 국무부 정보분석국의 동북아시아 책임자(1989-2002)였고, 그 기간의 상당기간 동안 그는 대북 협상단 수석대표의 고문직을 겸임했으며 북한과 미국사이의 모든 주요 협상에 참여하였다. 1971년부터 1988년에는 미국 중앙정보국의 분석관을 역임했다. 그는 북한을 30번 이상 방문했고, 그의 마지막 방문은 2017년 4월이다. 또한, 2013년에 돈 오버도퍼가 쓴 현대사의 필수불가결한 책 「두개의 한국」을 개정한 바 있다.



정지용
북단대학교 한국학센터장

정지용은 북단대학교 부교수이자 한국학센터장이며, 중국 영토주권 및 해양 권리 협력혁신센터 교수로서 북단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IFES, 경남대학교,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박사후 연구 경험이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 및 북한 국내 정치, 한반도 관련 양자 및 다자 관계이다. 그는 40편이 넘는 학술적 논문을 발간하였고, ROK's Political Party Systems 2008, ROK's Congress Politics 2017, The "Conflict-Reconciliation" Cycle on the Korean Peninsula: A Chinese Perspective 2012, Road Map to a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A Chinese Perspective 2015 등 5권의 책을 출간 혹은 편집하였다.



김은숙
한국교원대 교수

김은숙은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일본 쓰쿠바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부터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장, 양성평등교육연구소장, 여교수협의회 회장, 및 전국여교수연합회 부회장, 역사과교육과정 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중국 문명과 동아시아』(2006), 공저로는 『고등학교세계사』(2003), 『중학교역사』(2011) 『역주 일본서기』(1-3) 등이 있다.



우메노 마사노부
조에쓰 교육대학 부학장 및 이사

우메노 마사노부는 현재 조에쓰 도립대학에서 부학장 및 이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우메노 부학장은 조에쓰 도립대학과 가고시마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한 바 있으며, 역사 교육과 식민 역사 교육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판은쉬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연구소 부연구원

판은쉬는 현재 중국사회과학원에서 부연구원 겸 동북국경지대연구소에서 부국장을 맡고 있다. 난카이 대학교 세계사학전공 학사학위를 받았고, 북경대학에서 중국고대사전공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저장대학교의 중국고대사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다. 그는 동북국경지대의 역사와 민족에 중점을 두었고, 3개의 책과, 30개가 넘는 논문을 출판했다.



윤용혁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공주대학교 명예교수로 공주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쓰쿠바대학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각 1년 간 연구교수를 하였다. 1980년부터 2017년까지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공주대의 박물관장 · 도서관장 · 대학원장 · 문화유산대학원장 등을 역임 하였다. 호서사학회와 한국중세사학회의 회장, 국사편찬위원회의 국사편찬위원, 규슈대학 객원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는 공주대 명예교수, 충청남도과 세종시의 문화재위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이사를 맡고 있다. 저서로서는 「고려 대동항쟁사 연구」(1991), 「충청 역사문화 연구」(2009), 「가루베 지운의 백제연구」(2010), 「여몽 전쟁과 강화도성 연구」(2011), 「삼별초-무인정권 · 몽골, 그리고 바다로의 역사」(2014), 「한국 해양사 연구」(2015) 등이 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안충영 박사는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전력공사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다. 또한,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KOTRA 외국인투자 옵부즈만(2006-2014),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2010-201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제위원회 의장(2002-2005),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2002-2005),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2002-2005), 한국계량경제학회 회장(2002-2005)을 맡았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이동주는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다.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그는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실무위원회 위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심의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제도개선 TF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조옥박
산동대학교 동북아연구센터 센터장

조옥박은 현재 산동대학교(위해)에서 부총장으로, 2004년부터 산동대학교 교수를 지냈으며, 산동대학 동아시아연구센터에서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다. 그는 한국 호서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또한 위해시표준화연구소에서 소장(1994-1998)과 위해경제기술개발구 구청에서 부청장(1999-2003)을 지냈다.

**미츠이 이치토모**

가에쓰대학 대학원 대학원장 및 교수

미츠이 이치토모는 현재 세계중소기업연합회 일본 위원장과 일본국제중소기업위원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일본중소기업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그는 게이오 대학원에서 박사를 취득하였고, 이후 코마자와 대학(1991-2001)과 요코하마 국립대학(2001-2011)의 교수를 지냈다. 현재 그는 요코하마 국립대학 명예교수, 가에쓰 대학원의 총장 및 교수를 맡고 있다.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북방경제연구단장

안병민 박사는 현재 한국교통연구원 북방경제연구단 단장을 역임하고 있다. 일본 쓰쿠바 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쓰쿠바 대학 초빙교수와 UN ESCAP 국가전문가로 활동했다. 또한, 그는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직을 맡았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시곤 박사는 2003년부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사)대중교통포럼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되기 전에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연구실장을 역임하였다. 그의 최근 연구분야는 유라시아철도네트워크, 철도역 복합환승센터, 철도 사고 비상대응 등이다. 그는 1990년 미국 버지니아공대 주립대학교(Virginia Tech) 토목공학과에서 교통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송시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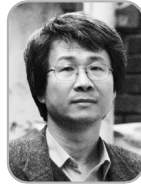
중국 위해항무그룹 부사장

송시귀는 현재 웨이하이항무집단에서 과장을 맡고 있다. 건설사업관리를 전공한 그는 난징경영공학대를 졸업했다. 졸업 후 그는 웨이하이 항만공사의 인프라 부서에서 일하며 건설 프로젝트본부 부장엔지니어, 웨이하이도시 항구개발추진위원회의 기획 및 개발부서 계장 및 웨이하이항무집단 기관장을 역임했다.

**아라이 히로후미**

일본 동북아경제연구소 연구부장, 수석연구위원

아라이 히로후미는 현재 한일본해경제연구소에서 소장이자 선임연구위원이다. 한일본해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하기 전 나가타현의 현청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도쿄대학에서 1990년에 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의 교통전문그룹의 일원이며 글로벌 NGO인 동북아가스파와스관포럼의 사무총장이기도 하다.

**강태호**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서울대 경제과 졸업,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거쳐 한겨레신문 통일팀장 등 20년 이상을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를 다룬 <미국의 세계전략>(편역) <코리아엔드게임>(공역), <천안함을 묻는다>(편저) <북방루트 리포트>(공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

허재영은 현재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이다. 그는 일본 오사카대학에서 공학 박사를 취득 후 1989년부터 2017년 4월까지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를 지냈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수자원학회 대전-충청지회 지회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그는 현재 충남 금강비전기획위원회 위원장(2011-),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원장(2011-), 대전환경운동 상임의장(2013-), 한국수자원공사 상생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2013-) 및 환경부 통합물관리비전위원회 운영위원장(2017-)등을 역임 중이다.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남정호 박사는 해양정책분야 연구자로, 1996년부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해양학으로 학사, 석사를 마쳤고, 동 대학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환경계획분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무총리 자문위원, 중앙연안관리 심의회 위원, 토지이용규제심의회 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PEMSEA, COBSEA, NOWPAP, YSLME 등 국제기구와 협력사업을 수행하였다.

**장이항**

전 UNDP 황해광역해양생태계 프로젝트 매니저

장이항은 UN에서 25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고위급 외교관이자 해양 물리학자다. 그는 7년 동안 UNDP/GEF 황해광역생태계사업(YSLME) 프로젝트의 매니저였고 4년 동안 UNEP/GEF 남중국해 계획에서 일했다. 또한, UNESCO-IOC에서 유엔 경력을 쌓기 시작했으며 서태평양 지역 해양 과학 분야에서 11년 넘게 지역 협력분야를 담당했다. 또한 방콕 IOC 지사의 창립에 참여했고 창립 멤버로 활동하였다.

**하마다 에이지**

시모노세키시립대학 교수

하마다 에이지는 일본 시모노세키 시립 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나가사키 대학 부교수(1984-1991) 및 도쿄해양대 부교수(1992-1999)를 역임하였다. 그는 규슈 대학에서 1987년에 농업 박사학위를 받았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오운열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이다. 전남대학교에서 영문학과로 학사학위를 받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국토해양부에서 일하며 공공주택개발과장, 해양정책과장을 맡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운영지원과장을 맡았다. 2014년에는 여수유류오염사고수습대책 단장과 여수지방해양항만 청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국제노동기구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미노우라 히로아키
일본 아시아대기오염연구센터 대기연구부장

미노우라 히로아키는 현재 아시아 대기오염 연구소에서 대기연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토요타 북미 연구소 Executive Engineer, 토요타 중앙 R&D 연구소 수석 연구원과 수사과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나고야 대학에서 태양-지구 환경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 원장

박재묵은 대전세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1년부터 2015년까지 충남대학교에서 사회학 교수로 재직했고, 한국사회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 및 한국NGO학회의 회장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환경운동연합의 공동대표를 지냈다. 현재는 대전세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대기질 종합예보센터 센터장

장임석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대기질 종합예보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대기과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국립연구소 대기환경 연구원으로 지냈으며 현재 기후대기연구부에서 LTP 사무국장, 환경위성사업 추진단장, KORUS-AQ 실행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명형남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명형남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 박사학위(환경보건 전공)를 받았다. (주)한일정수 대기환경기사, 환경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선임연구원, 아주대 예방의학교실 연구조교를 거쳐 현재 충남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환경보건, 기후변화, 환경복지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Role of local government for environmental health challenges: A case study of Chungnam", "Characteristics and the regional variation of meteorological disaster-attributed mortality in Korea", "Food Ingestion Factors of the Korean Exposure Factors Handbook" 등이 있다.



강명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장

강명구는 1987년부터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동아시아 미디어론, 미디어와 문화연구, 질적연구방법론 등을 가르치고 있다. 지난 4년간 아시아연구소 소장직을 수행하였다. 동경대 특임교수, 북경대, 전매대 방문교수를 지냈고, 세계문화학회 아시아지역 대표이사, 글로벌 인터넷거버넌스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아시아 문화연구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했다. 서울대 기초교육원 원장, 자유전공학부 추진단장 등을 지내면서, 대학교육 혁신을 통한 인재양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중일 청년의 꿈과 고뇌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2016년 『훈민과 계몽: 한국 공론장의 역사적 형성』(나남출판)을 출간했다.



왕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지구 및 지구경제연구소 조교수

왕리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CR)의 공간 계획과 지방경제 연구소에서 근무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지속가능 발전과 지역개발이다. 60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중국의 많은 지역을 연구하였다. 또한, 중국과학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전공하였다.



임승관
생활문화공동체 문화바람 대표

시민문화공동체 '문화바람' 대표. 인천에서 태어났으며, 회화를 전공했다. 1996년 다양한 장르의 시민문화운동을 하다가 2005년 지역 내 열악한 문화환경 극복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문화수용자 운동'을 선포하고, 시민문화공동체 '문화바람' 창립에 함께했다. 문화가 변하면 사회가 바뀌고, 그 문화는 시민이 만드는 '생활문화'라는 것을 매일 확인하고 그 요소를 분석하고 있다. 현재 '문화바람'의 대표로 일하면서 동시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운영 컨설턴트 등 생활문화 예술의 역할과 운영 방법에 대한 공부와 강의를 지속하고 있다.



팡레이
전 송장미술관 관장

팡레이는 중국 송장아트센터의 전 관장이고, '설경 문화와 아트(SSA)'의 설립자이자 회장이다. 1971년생으로, 현재 현대 미술에 있어서 중요한 큐레이터이다. 팡레이는 1997년에 예술적, 큐레이터의 커리어를 시작하였다. 2005년에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울렌스 현대예술센터(UCCA)'를 설립했다. 2012년에는 송장아트센터의 관장으로 취임하여, 2017년 6월에 임기를 마쳤다.



노리아키 이마이
認定 NPO 법인 DxP 이사장

이마이 노리아키는 1985년 삿포로에서 출생하여 2010년에 리츠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을 졸업하였다. 2011년에는 임의단체인 Dream Possibility를 설립하고 2012년 6월에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인 DxP를 설립하였다.



김종구
이화여대 조소과 교수

김종구는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 1988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입학, 1993년 대학원에서 조각을 전공하고, 1995년 영국 첼시 컬리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0년 작업(天-90)으로 제9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하면서, 그 외 다수의 공모전과 2002년 김세중 청년조각상을 수상하였다. 1993년 통쇠를 깎아 만든 조각 설치작업으로 첫 번째 개인전을 아르코 미술관에서 개최하면서 김종영 미술관, Spencer Museum, USA 등 총 19번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광주비엔날레, 베를린에서 열린 Re-Imagining Asia, 등과 같은 국내외의 주요 단체전에 참가하였다. 2001년 ART-OMI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으며, 2002년에는 뉴욕 MoMA 뮤지엄 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후원하는 뉴욕 P.S.-1 International Studio Program (MoMA) 한국 참여작가로 선정되어 1년간 뉴욕에서 작업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Spencer Museum 등 다수의 미술관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임옥상
화가, 세계문자연구소 대표

임옥상은 현재 세계문자연구소 대표이다. 서울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1979년부터 1981년 까지 광주교육대학 교수, 1981년부터 1992년 까지 전주대학교 교수를 지냈으며 민족 미술협회의 대표를 지냈다. 최근 개인전으로는 2017년 가나아트센터에서 '바람 일다'를 제목으로 열었으며 2016년 '한국 현대미술의 눈과 정신 II: 리얼리즘의 복권'을 제목으로 인사아트센터에서 단체전을 열었다. 그는 1985년 학원예술상, 1992년 가나아트상, 1993년 토탈아트상과 2004년 동아 플레이 어워드, 무대디자인을 수상했다.



조미수
풀올림 공동대표, 전 Peace Boat 공동대표

조미수는 일본 국제교류단체 "피스보트 (Peace Boat)"에서 활동(2000-2012)하였다. 또한, 남북 코리아 크루즈, 한일공동항해, 피스보트 지구대학 등을 담당하였고, 성공회대학교 아시아바정부기구학(MAINS) 석사 졸업(2013-2014)하였다. 이후 한신대학교 평화와공공성센터 연구원 및 ARI(Asia Regional Initiative) 사무국장으로서 동아시아 시민연대사업에 종사하였다. 현재 뮤지컬을 통한 한일시민 교류단체 "풀올림" 공동대표, 스터디투어 코디네이터 등으로 활동한다.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

강현수는 충남연구원 원장이며 중부대학교 교수이다. 한국공관환경학회 학회장, 참여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분과위원회 자문위원, 참여정부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참여정부 대통령 자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전문위원, 참여정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참여정부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공기관이전특별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정부혁신지방분권 자문위원등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초시
충북연구원 원장

정초시는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교수와 한국은행 충북본부자문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충북연구원 원장이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81년에 국제경제연구원 연구원으로 동향분석실에서 재직했으며, 82년부터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1993년에는 샌디에고대학 경제학과 교환교수, 2009년에는 런던 동양연구학교에서 경제학과교환교수를 역임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한국경제학회 이사를 맡았다.



평젠창
허베이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평젠창은 교수이자 허베이 성의 허베이사회과학원의 부원장으로, 농촌경제학 분야의 대표 연구자이며, HASS의 도농개발연구센터의 학장이다. 그는 중국 국가 교수준 재능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선도하는 전문가 중 한 사람이며, 허베이성 지방 정부의 선정된 고문으로, 지방인민대표회의의 금융경제위원회의 일원이기도 하다. 그의 주 연구 주제는 농촌 경제와 개발, 지방 경제와 개발, 도시화와 농촌 통합이다.



왕성귀
산동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왕성귀는 산동성사회과학대 부총장/교수, 사회과학농업경제학회 부회장, 산동성현대농업시스템산업의 경제포스트 전문가, 산동성농업협회 사무총장, 산동성농촌개혁개발연구회 총감을 맡고 있다.

최근 그는 지방신문과 정기 간행물에 30여개 이상의 글을 출판했으며 10개 이상의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2개의 국가사회과학재단 프로젝트와 2개의 주정부사회과학재단 프로젝트를 맡았으며 산동성의 사회과학 분야의 뛰어난 업적 1,2,3등 상을 받았다.



고우이용
귀주성 사회과학원 대외경제연구소장

고우이용은 현재 귀주성 사회과학원 대외경제연구소의 소장이다. 그는 귀주성 문화 프로그램다 부서의 '학설의 재능'을 수상하였으며 지역경제학, 공공경제학의 정책과 방안에 관련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의 주요 연구 성과는 14권의 학술

단행본(11권은 공동 저자 형태로 출간)을 포함하여 40편 이상의 학술 논문을 편찬하였다. 그는 50개 이상의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초청되었으며 30개 이상의 시 단위, 성 단위, 국가 단위 정부의 서류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다즈강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

다즈강은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소장 이자, 1962년 하얼빈에서 태어났다. 그의 주 연구 분야는 동북아시아 지역경제와 일본, 남한과 한국 학이다. 20권 이상의 단행본을 집필, 편찬, 번역하였으며, 200편 이상의 논문, 연구보고서, 평론, 연구 개요 등을 국내외에서 발간하였고, 100편 이상의 학술 논문, 학술 평론이 광명일보, 환구시보, 주간사회과학 등에 게재되었다.



정일지
구마모토현립대학 거주환경학과 준교수

정일지의 전공은 도시계획 및 마치즈쿠리, 그리고 지역재생이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시장의 경관 디자인코드, 빈땅재생이나 지방도시 컴팩트시티, 마을의 기억과 개인 기억을 엮어가는 도시재생수법인 에코뮤지엄 등에 관해 연구 실천해 왔다. 현장베이스의 연구를 중요시 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구마모토 지진에 의한 마을

복구 및 부흥 마치즈쿠리에 관해 연구를 시작했다.

English



Program

Nov. 2(Thu) – 3(Fri), 2017 | Gongju Art Center GOMA

Date	Time	Program	
November 2nd (Thur)	09:00-09:30	Registration	
	09:30-10:10	Opening Ceremony	Opening Remarks: Hee-jung Ahn (Governor of Chungcheongnam-do) Congratulatory Address: Suk-woo Yoon (Chairman of Chungcheongnam-do Government) Welcoming Speech: Chu Guohong (China's Ambassador to the R.O.K)
		Keynote Speech	Chung-in Moon (Special Advisor to the President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10:10-11:40	Special Session 1	'Improving ROK-China Relations and Promoting Peace in the Pan-Yellow Sea' Moderator: Heung-Kyu Kim (Director, China Policy Institute at Ajou University) Keynote Speech: Hee-jung Ahn (Governor of Chungcheongnam-do) Discussion: - Sung Hwan Kim (Distinguished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Jung-Seung Shin (Chair Professor at Dongseo University, Managing Director of the Center for Chinese Studies / former ROK Ambassador to China) - Zhang Huizhi (Director, Institute of DPRK and ROK Studies, Jilin University)
	11:40-13:00	Official Luncheon	
	13:00-14:30	Session (Peace)	Peace 1] 'Envisioning and Realizing a Special Zone of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West Sea' Moderator: John Delury (Associate Professor,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resentation: - Jong-Dae Kim (Member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NA), Justice Party) - Robert Carlin (Visiting Fellow, Stanford Un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 Zheng Jiyong (Director, Center for Korean Studies, Fudan University)
			Peace 2] 'Pan-Yellow Sea Strategy to Solve Historical Conflicts' Moderator: Eun-sook Kim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esentation: - Masanobu Umeno (Vice President and Executive Director, Joetsu University of Education) - Fan Enshi (Associate Research Fellow, Institute of Chinese Borderland Studies,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 Yong-hyuk Yoon (Emeritus Professor, Kongju National University)
	14:30-14:50	Break	
	14:50-16:20	Session (Prosperity)	Prosperity 1] 'Job Creation through Developing SMEs: Role of Local Governments' Moderator: Choong-yong Ahn (Chairman,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Presentation: - Dong joo Lee (Director of Research Division,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KOSBI)) - Zhao Yupu (Director, Center for Northeast Asia Research, Shandong University) - Itsutomo Mitsui (Dean of Graduate School, Professor of Kaetsu University)
			Prosperity 2] 'Linking Port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Network for a Pan-Yellow Sea Era' Moderator: Byung-Min Ahn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Transport Institute) Presentation: - Sigon Kim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Song Xige (Vice President, Weihai Port Group Co., Ltd.)



Date	Time	Program	
November 3rd (F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rofumi Arai (Director of Research Division / Senior Research Fellow,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Discu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eho Kang (Head, Hankyoreh Peace Institute)
	16:20-16:40	Break	
	16:40-18:10	Session (Symbiosis)	Symbiosis 1] 'Cooperative Measures to Co-manage and Use Pan-Yellow Sea Fisheries Resources' Moderator: Jae-yeong Huh (President, Chungnam State University) Pres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ungho Nam (Research Fellow, Korea Maritime Institute) - Jiang Yihang (Former Project Manager, UNDP/GEF YSLME Project) - Eiji Hamada (Professor, Shimonoseki City University) Discu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n yul Oh (Deputy Director General, Aquaculture Policy Bureau,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ymbiosis 2] 'Solutions to the Management of Fine Dust for Improving Air Quality' Moderator: Jae-Mook Park (President,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Pres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yung-Nam Myung (Senior Researcher, ChungNam Institute) - Wang Li (Assistant Professor, Institute of Spatial Planning & Regional Economy,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P. R. China) - Hiroaki Minoura (Department Head, Atmospheric Research Department,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Discu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mseok Chang (Director,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18:10-18:30	Break	
	18:30-20:30	Official Dinner	
	09:30-10:50	Special Session 2	'The Era of Local Extinction: Youth who Dream of a New Future' Moderator: Myungkoo Kang (Direct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Pres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ng Kwan Lim (Head, Civil Cultural Communities Wind of Culture) - Fang Lei (Former Director, Songzhuang Art Center) - Noriaki Imai (Chairman, NPO Co. DxP) Discu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ongku Kim (Professor, Ewha College of Art and Design, Ewha Womans University) - Ok Sang Lim (Painter, President of World Script Institute) - Misu Cho (Co-representative of Pullullim / former co-CEO of Peace Boat)
	10:50-11:10	Break	
	11:10-12:30	Special Session 3	'Round Table for Measures of Cooperation among ROK-China-Japan Think Tanks' Moderator: Hyun Soo Kang (President, ChungNam Institute) Discu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rea) Cho see Jung (President, Chungbuk Research Institute) - (China) Peng Jianqiang (Vice President, Hebei Academy of Social Sciences) - (China) Wang Xingguo (Vice President, Shandong Academy of Social Sciences) - (China) Gou Yiyong (Division Director, Foreig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Guizhou Academy of Social Sciences) - (China) Da Zhigang (Director Researcher, Heilongjiang Provincial Academy of Social Sciences) - (Japan) Ilji Cheong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Human Habitat, Prefectural University of Kumamoto)
	12:30-13:30	Farewell luncheon and departure	



Opening Ceremony

I welcome all residents from Chungcheongnam-do and visitors from Korea and abroad.

I sincerely thank all of you for participating in the Pan-Yellow Sea Forum despite your busy schedules.

Chungcheongnam-do successfully held the Pan-Yellow Sea Forum in 2015 and 2016 in a bid to promote peaceful community relations in East Asia, and now we are about to hold the third forum this year. In this forum, we intend to encourage cooperative plans between local governments by taking another step forward.

Northeast Asia at this time faces more difficult circumstances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compared to other areas. Countries in East Asia have still to overcome the bitter legacies of imperialism and the Cold War that marred the history of this region during the past centuries. In addition, very unstable conditions continue to prevail from a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due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and the unresolved issue of North Korea.

Hereupon, Chungcheongnam-do is suggesting a new way forward named ‘local cooperation in the Pan-Yellow Sea’ as a first step for peace, stabilization,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Our aim is to create a new set of relations based on cooperation instead of the distrust and conflict that existed in Northeast Asia during the past century. In the 21st century, only peace and cooperation will lead to prosperity. Let’s work on establishing a new identity based on ‘the community of interest and hope’ in Pan-Yellow Sea areas.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for residents in the different areas and local governments to build up and gain experiences of cooperation and expand those areas in which we can continuously cooperate in based on such positive experiences. It is entirely possible to establish lines of global cooperation that span across the Chinese East Sea rim and Pan Arctic Sea in China as our efforts in this direction increase and expand. In addition, it is hoped and anticipated that such efforts will become the basis for bringing stability and peace to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as well as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e are all responsible for promoting peace in Northeast Asia. We have all come to this forum to perform our responsibilities in an attempt to champion the cause of peace in this era for the sake not only of ourselves but for our descendants as well. I strongly believe that our efforts can change this region and the world in a positive way. I want all the leaders and scholars from each country to do their best in suggesting creative and outstanding plans in order to bolster the cooperation we need to secure peace, prosperity, and co-existence in Pan-Yellow Sea areas. Chungcheongnam-do promises to continuously make every effort for peace and prosperity in Pan-Yellow Sea areas. Thank you.

November 2, 2017

Hee-jung Ahn



Congratulatory Address

Good morning. It is a pleasure to be with you here on this special occasion.

I am pleased that the 3rd Pan-Yellow Sea Forum under the theme “Establishment of an Asian Peace Community” is held here in Gongju City, home of Gyeryongsan Mountain, a national spiritual mountain, and Baekje historic areas which are listed as UNESCO World Heritage sites. I, along with the 2.2 million fine citizens of Chungcheongnam-do, extend our sincere congratulations.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and encouragement to the Governor of Chungcheongnam-do Ahn Hee-jung, Chairman of the East Asia Foundation Gong Ro-myung, and President of ChungNam Institute Kang Hyeon-su, all of whom have dedicated themselves to preparing this valuable forum for the third time. I also thank those who worked alongside the group for their passion and efforts.

And, I would like to give a welcoming greeting to the presidential special advisor for unification, foreign and national security affairs Moon Chung-in, Gongju City Mayor Oh Si-deok as well as the chiefs of organizations for oversea exchange and distinguished guests who have taken the time out of their busy schedules to attend this event.

“The Pan-Yellow Sea” draws attention because the future centered on the Northeast Asia, along with the future of the Chungcheongnam-do, depend on it. In particular, the three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have been long-standing rivals and, at the same time, allies throughout the history of East Asia.



Recently, the military,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among the three countries are intricately interwoven amid the continuing armed provocation by North Korea. At this time, I believe it is significant for local governments in East Asia to take the lead in exploring ways to promote friendship and working toward a sustainable future with the goal of mutual prosperity,

The Pan-Yellow Sea Region has rapidly emerged as the heart of the global economy in different areas such as finance, technology, and infrastructure. Therefore, the countries in the region must place greater emphasis on cooperation than on competition. And, I am certain that local governments of those countries will benefit from mutual growth if they build a steady, cooperative relationship, drawing upon unique strengths and addressing needs at the same time.

It is my hope that the Pan-Yellow Sea Forum, which aims to promote “peace, prosperity and symbiosis of Asia,” will continue to grow and flourish in the years to come, and establish itself as a venue that promotes the prosperity of East Asia.

Nov. 2, 2017
Suk-woo Yoon



Keynote Speech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 Pan-Yellow Sea Peace Initiative¹⁾

Chung-in Moon

(Distinguished Professor, Yonsei University/Special Advisor for Unification,
Diplomacy and National Security affairs to President Moon Jae-in)

I'd like to express my sincere congratulations to everyone involved on this occasion of the 3rd Pan-Yellow Sea Forum. It is a great honor to have the opportunity to deliver the keynote speech at this forum. I attended the 2nd forum last year, as well. At that time, I was deeply impressed by the forward-looking vision, rich and creative content and the diversity and high level of the participants involved. I'd like to sincerely express my respect for Chungcheongnam-do Governor Ahn Hee-jung, who has supported this forum in a difficult environment. Without his vision, leadership and passion, this forum would be impossible. And I'd also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and respect to every person who helped to prepare this forum, as well as all of the residents of Chungcheongnam-do.

The Korean Peninsula is again at a crossroads of war and peace.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we have not stood this close to the point of no return since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in July 1953. Kim Jong Un's reckless

1) Keynote speech at the 3rd Pan-Yellow Sea Forum hosted by Chungcheongnam-do



military provocations, Donald Trump's offensive rhetoric and military maneuvers, China's tough position over the deployment of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missile system in South Korea, and domestic polarization in South Korea has trapped the newly inaugurated President Moon Jae-in in a security dilemma with grave implications. The root cause of this quagmire is North Korea's reckless pursuit of its nuclear ambitions.

A Nuclear North Korea?

So, what is the essence of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What should be made clear here is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North Korea cannot be recognized as a full-fledged nuclear-weapons state. In point of fact, however, it cannot be denied that Pyongyang is on the verge of becoming a country with nuclear-weapons capabilities. Several factors point to its nuclear status.

First, North Korea is believed to have steadily amassed nuclear materials and is now estimated to possess an arsenal of more than 10 nuclear warheads. According to a recent analysis by Siegfried Hecker, a renowned nuclear weapons expert who is also the last outsider allowed to visit North Korea's nuclear complex at Youngbyon, North Korea might have secured sufficient fissile materials for four to eight plutonium weapons and six to 20 highly enriched uranium (HEU) weapons, with an annual production capacity of at most one plutonium weapon and possibly six HEU weapons. According to US news reports,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has assessed that North Korea could already possess as many as 60 nuclear bombs.²⁾ Some analysts project that North Korea could acquire 100 nuclear warheads by the year 2020, if its efforts are not interrupted. The reality tells us that we should

2)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north-korea-now-making-missile-ready-nuclear-weapons-us-analysts-say/2017/08/08/e14b882a-7b6b-11e7-9d08-b79f191668ed_story.html?utm_term=.14a8a80ad80a

believe that the North has secured several nuclear warheads, which are the core elements of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Second, North Korea has developed an array of delivery capabilities ranging from short-range Scud B and C missiles (with a range of 300km-500km) and Nodong (with a range of 1,000km) to Musudan intermediate-range missiles (with a range of 3,000km). The Scud B and C, as well as the Nodong missiles are currently operational, but the operational effectiveness of the Musudan has been questioned because four out of its five previous test launches have failed. Nevertheless, Pyongyang was successful in test-launching the Hwasung 12 intermediate-range missile (IRBM) in May and September and the Hwasung 14, an ICBM class long-range ballistic missile, on July 4th and July 28th of this year. As Kim Jong Un has stated, North Korea is in the “final stage” of developing ICBMs. Equally worrisome is its acquisition of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s (SLBMs).

Third, North Korea has conducted six nuclear tests since September 2006, of which five are known to have been successful. The destructive power of its previous five tests was less than 25 kilotons each, which is roughly the same as the atomic bomb dropped on Nagasaki in 1945, but the September 3rd test, which Pyongyang claims was a hydrogen bomb, is estimated to have had a yield of more than 100 kilotons.

Finally, North Korea claims that it has succeeded in diversifying nuclear bombs (fission-bombs, boosted fission-bombs, and hydrogen bombs) as well as making nuclear devices smaller and lighter. It has even declared that it has achieved the standardization of nuclear bombs for mass production.

Judged by its acquisition of nuclear warheads, delivery capabilities, nuclear testing, and the sophistication of its nuclear weapons technology, North Korea is nearing the status of undeniable nuclear-weapons capability. International pressure and sanctions notwithstanding, Kim Jong Un has made it clear that he will not jettison the North's *Byungjin* policy (the simultaneous pursuit of economic development and



nuclear weapons). Thu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will continue not only for their domestic legitimacy-building and international prestige, but also for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s leader (*suryong*), its institutions (*jedo*), and its people (*inmin*).

We Cannot Tolerate a Nuclear North Korea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s thus no longer hypothetical but real; no longer future tense, but here and now. It poses a serious security threat to the peninsula, to all of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We cannot tolerate a nuclear North Korea for several reasons.

-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would significantly alter the military bala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ultimately impede inter-Korean peaceful coexistence. Moreover, it will trigger an immense conventional and nuclear arms race on the peninsula.
- Pyongyang's superiority in military power could also tempt its leadership to deliberate on reviving its old strategy of a unified front (*Tongil Jeonsun*), which attempts to communize South Korea on its own terms. The by-laws of the Korea Workers' Party still retain this goal in the preamble.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North would pursue this strategy whenever it becomes militarily stronger than the South. It might sound illusory, but the reality is too dire to rule out such possibility.
- The regional security impacts would be profound. In addition to strategic instability and a spiraling arms race, a nuclear domino effect might lead to proliferation elsewhere in Northeast Asia.
- And the possibility exists that North Korea will export nuclear materials, technology, and even warheads to other actors, threatening the very foundations of world security in this age of global terrorism.

For these reasons, we must prevent North Korea from possessing nuclear weapons. This is not simply a matter of choice, but a normative proposition.

The Moon Jae-in Government's Strategy: Dialogue and Negotiation, Sanctions and Pressure, Deterrence and Defense

President Moon Jae-in has adopted two principles and three strategies to deal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The first principle i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He firmly believes that South Korea cannot peacefully co-exist with a nuclear North Korea, and that Pyongyang's nuclear ambitions should be stopped.

The second principle is that there should not be anothe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should be resolved peacefully through diplomatic means. He has said clearly that no country can take military ac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prior consultation with and the agreement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is underscores his commitment to peace and his opposition to military actions and war.

While adhering to the principles of a “denuclearized North Korea” and “no mor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Moon has advanced four strategies. They are dialogue and negotiation, sanctions and pressure, defense and deterrence.

President Moon's first strategic choice is to restore dialogue and negotiation as a viable means of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He is well aware of the inherent limits to dialogue and negotiation, and has absorbed the lessons of the failure of the Six-Party Talks as well as the bilateral talks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Nevertheless, he insists that Pyongyang and Washington should find a way to revive their broken channels of communication and engage in meaningful dialogue and negotiation, ultimately including the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In tandem with this, President Moon is determined to establish parallel bilateral talks with North Korea. He has already proposed to Pyongyang to have Red Cross talks over humanitarian concerns and military talks to reduce tensions along the Demilitarized Zone (DMZ). The Moon government also wants to resum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especially on the non-governmental level, within the boundaries of international sanctions. One thing to be clear here is that the bilateral dialogue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can be a primary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s and the resumption of the inter-Korean dialogue can play a positive role in the North Korean nuclear dialogues.

But the North has not yet responded to his proposal. In his interview with TASS, a Russian state news agency, the North Korean Foreign Minister Ri Young-ho argued that “it is first of all necessary that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should halt their humble submission to the USA in its hostile policy and the campaign of sanctions and pressure against the DPRK. It is important that they should change their policy in favor of pan-national interaction and measures to cut short acts of aggression and interference from outside.”³⁾ As long as South Korea resorts to sanctions and pressure against the North, following the US line, Pyongyang sees no prospect for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While not only defying Seoul’s call for dialogue, but also ignoring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North Korea has undertaken one underground nuclear test and ten missile test launches.

Facing Pyongyang’s reckless challenge, President Moon has to take an alternative strategy. That strategy is sanctions and maximum pressure. The Moon government has cooperated closely with the US and Japan in pushing for tougher sanctions resolutions a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has fully complied with them. Seoul has also pledged to go along with US unilateral sanctions, including secondary boycotts. More importantly, the Moon government has decided to sustain the sanctions adopted by previous conservative governments, such as the May 24th

3) <http://tass.com/world/964395/>

measure that bans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the North and the suspension of the Kaesu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Mt. Geumgang tourist project. Sanctions and pressure are definitely a second best plan, but for now, there seem to be no other ways around with the current behavior of North Korea.

Third, the Moon government is pursuing a strategy of deterrence and missile defense. Deterrence is a strategy that aims to prevent North Korea from acting in a certain way by threatening to retaliate with credible military force. It is composed of two elements. One is conventional deterrence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ROK-US combined forces and South Korea's self-reliant defense posture. The other is nuclear deterrence through clos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with the US on extended deterrence and the provision of America's nuclear umbrella. Deterrence is the very essential military strategy of a sovereign state.

Missile defense constitutes another important component. It is composed of active defense (the Patriot and THAAD systems), passive defense (monthly civil defense exercises), offensive defense (kill chain and massive punishment retaliatory measures), and battle management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intelligence, reconnaissance, and surveillance).

Some argue that the compellence option is also being deliberated on by the Moon Government. Compellence refers to a strategy to make North Korea alter its behavior through the threat or use of force. Whereas deterrence is a passive maneuver, compellence is a more proactive move through the deployment of coercive diplomacy. Deployment of strategic bombers such as B1B, B-2, B-52, carrier battle groups, and nuclear propelled submarines over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the core of the compellence strategy. However, this has been an American strategy, and South Korea has been a passive participant in it.

These three strategies might appear to be contradictory. In reality, however, they are not. President Moon has always made dialogue and negotiation the top priority. Nevertheless, he has to combine it with other options, to reflect changing



circumstances. It should be noted that for him, sanctions and pressures as well as compellence are not an end in itself, but the means of bringing the North to negotiation table.

The Moon Government's 'Three Nos': No Nukes, No Military Action and No Regime Change

While advocating four prolonged strategies, 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also been clear in what it rejects. There are the so-called '3 Nos': No Nukes, No Military Action, No Regime Change.

First, the Moon government opposes the nuclear armament option. A growing number of people in South Korea are beginning to favor the development of an indigenous nuclear arms program to deal with Pyongyang's nuclear threat. They advocate the independent acquisition of nuclear weapons, arguing that America's nuclear umbrella, provided under the scheme of extended deterrence, is a broken umbrella. But their argument is faulty because American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and its nuclear umbrella is unquestionably firm. Worse is that as soon as South Korea declares its intention to pursue this course, it will face strong headwinds. The nation's nuclear power industry would be ruined, as would the country's traditional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The South Korean economy would risk facing international sanctions that could send it into a tailspin. Moreover, South Korea going nuclear could be a tipping point that triggers a nuclear domino effect in Northeast Asia. These factors have led the Moon government to oppose the nuclear option.

As well, a nuclear armed Northeast Asia would not benefit the United States. Judging by the overall public sentiment in Washington, it would be extremely difficult for the US to maintain alliances with a nuclear Japan and/or South Korea. Such a development is likely to lead to a loss of American allies in the region. More importantly, the US would lose its "hegemonic" influence over the region. Japan

and South Korea armed with nuclear weapons would not be likely to comply with American demands.

Some South Korean pundits advocate the redeployment and co-sharing of American tactical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if an independent nuclear option is unworkable. But the Moon government has formally rejected bringing US nukes onto South Korean soil, sinc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and undermines the demand for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ing (CVID) of North Korean nuclear programs and weapons. Such deployment could also trigger a tense nuclear arms race in Northeast Asia. The introduction of nuclear warheads would also introduce *new* risks both in terms of public safety to South Koreans and escalatory risks and miscalculations in deterring North Korea. It is playing with fire. Despite remarks by certain US officials hinting at the possibility, the US is not likely to accommodate such a request for strategic, tactical, budgetary, and logistic reasons.

Second, the Moon government resolutely opposes military actions, be they preemption and/or preventive war. This opposition is grounded in basic cost-benefit analysis. Once initiated, a conflict would be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contain, and the human and economic costs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 staggering. With a huge civilian population living within artillery range and the largest economies in the world within missile range, South Korea, Asia and the world simply have too much to lose from a war with North Korea—which has very little to lose and will fight to the death. And for what benefit?

There is in fact a low probability of achieving the desired military and political objectives. Destroying North Korea's nuclear assets (nuclear facilities, materials, and warheads), which are distributed, concealed, and bunkered against attack, as well as its mobile missile-launching sites, will not be easy. Given the fortified command-and-control system, targeting and decapitating the country's political leadership and solving the "designated survivor" problem will be virtually



impossible. Meanwhile, North Korea's massive retaliatory capabilities and subsequent escalation of military conflict would entail grave human casualties and economic catastrophe in South Korea.

Finally, the Moon government is also skeptical of regime change involving the removal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On several occasions, including his speech in Berlin on July 6, President Moon clearly said that he will seek neither regime change in the North nor unification by absorption on South Korean terms. He believes these are neither desirable nor feasible. This is not desirable because such a move would undermine mutual trust, while stiffening Pyongyang's hostility. And it is not feasible in the short run because removing North Korea's leadership is extremely difficult from a practical standpoint. Furthermore, the collapse of the Kim Jong Un regime would not necessarily mean the end of the DPRK as a sovereign state. The military or military-party collective leadership could easily replace the Kim regime, and any new leadership is likely to show the same behavior. A mass uprising could bring about an abrupt end to the regime, but at present this seems very unlikely. Moreover, loss of control ov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the wake of political and social chaos is another reason why the Moon government is less receptive to leadership or regime change.

Air Forces as the Core of Deterrence and Defense

Sanctions and pressure cannot be avoided as long as North Korea violates UN Security Council sanction resolutions. The Moon Jae-in government will continue to take a tough stance on North Korea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I believe that there is still room for dialogue and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In his recent column in *The Washington Post*, William Perry argued that we need to "talk first, get tough later." I agree with him. I believe engagement, dialogue and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re still the most credible way of handling Pyongyang. Obama's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and Park Geun-hye's 'trust politics' ultimately failed simply because pressure and sanctions

outweighed engagement and dialogue, which in turn demolished the foundation for mutual trust-building. Nevertheless, past failure should not serve as an excuse for not engaging with the North.

Washington and Pyongyang are the only two countries that can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 personally see signs of North Korea's willingness to talk with the US, and it is up to the US to probe in a proactive way at the highest level possible. The role of President Trump is, therefore, of paramount importance. Trump should avoid a war of words. His use of hostile rhetoric such as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and "little rocket man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is counter-productive. Trump needs to open channels of communication with the North, and should consider dispatching a high-level special envoy to Pyongyang. He also needs to have an inter-subjectiv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which is essential to trust-building, and to avoid the folly of demonizing the North. Incentives and disincentives should be flexibly presented. As Sam Nunn aptly points out in his statement to Congress, President Trump should seek "a unified policy approach to North Korea from our allies, from China, from Russi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Finally, he should send a clear and optimistic message to North Korea and the world that the North Korean nuclear quagmire can be peacefully resolved. Trump should apply the ideas embodied in his book *The Art of Deal* in dealing with Pyongyang.

To stress again, the Moon Jae-in government finds itself placed in a stringent 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However, President Moon will overcome this, and thus will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peace and mutual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beyond the Korean peninsula. To this end, efforts by local governments such as the Pan-Yellow Sea Forum are essential. Peace and prosperity do not descend in one direction, like God's blessing from above to the Earth. Rather, peace and prosperity are possible when there are earnest wishes and sincere efforts from the bottom. With this perspective, the efforts by Chungcheongnam-do to make plans



and hold forums such as the Pan Yellow Sea Forum will provide great support and encouragement for the Moon Jae-in government.

Suppose that the two Koreas establish a peace and cooperation area in the West Sea, thus preventing incidental military collision and allowing a joint fishery project. Suppose that in the Yellow Sea, maritime drills by regional countries disappear and all-encompassing exchange and cooperation are promoted in the areas of the economy, socio-culture and environment. This will bring about peace, co-prosperity and harmony in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what Chungcheongnam-do dreams of, and what the Moon Jae-in government dreams of. Now, common denominators such as peace and co-prosperity have been prepared. And I think what remains to be done is for Chungcheongnam-do and the government to cooperate.

Again, I'd like to congratulate you all for this successful holding of the 3rd Pan-Yellow Sea Forum. And I'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everyone who has worked to make this a successful forum. I'd also like to express my respect to Chungcheongnam-do, the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and the East Asia Foundation for their dedicated efforts.



Attendants Introduce



Heung-Kyu Kim
Director, China Policy Institute at Ajou University

Dr. Heung-Kyu Kim currently serves as the Director of China Policy Institute and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t Ajou University. He served as a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IFANS), MOFA. He received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the University of Michigan.

Dr. Kim was an executive consultant in the State Affairs Planning Advisory Committee for Moon Jae-in government and a regular participant at ROK-China Strategic Dialogues and at Korea-China Professional Commission backed by the MOFA.



Sung Hwan Kim
Distinguished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ung-Hwan Kim was a career diplomat and served as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October 2010 to March 2013.

With a career spanning over 36 years, he held a number of senior diplomatic posts including the Senior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and Vice Minister of MOFAT. He was ROK's ambassador to Austria and Permanent Representative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Vienna and the ROK's Ambassador to Uzbekistan.

He was appointed as a Member of the UN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in July, 2010.

After retiring from the Foreign Service, he served as the Chair of Institute for Global Social Responsibility and Distinguished Visiting Professor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until March 2015.

Now he is working as a Distinguished Visiting Professor at the Hanyang University and the Chairman of the Gangwon Art and Culture Foundation.



Jung-Seung Shin
Chair Professor, Director of Dongseo University/ former ROK Ambassador to China

Amb. Shin Jung-Seung, a former Korean Ambassador to China, is now a Chair Professor and the Managing Director of the Center for Chinese Studies, Dongseo University. He is concurrently a professor at the Solbridge International School of Business at Woosong University, Secretary General at Future Forest, a non-profit cultural foundation in Seoul, and President of the Platform-L Art Center. His foreign service as a career diplomat before his retirement in 2010, includes First Secretary to the USA, Counselor to Japan, Minister to China, Ambassador to New Zealand.



Zhang Huizhi
Director of Institute of DPRK and ROK Studies, Jilin University

Zhang Huizhi is a Professor and Vice Dean of the Northeast Asian Studies College and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DPRK and ROK Studies at Jilin University. She served as an Associate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World Economics Studies at Jilin University from 2002 to 2008. She received M.A. and B.A. in Economics at Jilin University and her Ph.D. in International Business at Kyung Hee University in 2004.



John Delury
Associate Professor,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John Delury is Associate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Underwood International College. Trained as an historian of modern China, he is the author of *Wealth and Power: China's Long March to the Twenty-First Century* (Random House, 2013), with Orville Schell, which was translated into Chinese, Japanese and Korean. He also follows Korean Peninsula affairs closely, having visited North Korea four times, and contributes regularly to *Foreign Affairs*, *38 North* and *Global Asia* (where he is book review editor). John is a member of the National Committee on US-China Relations and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senior fellow at the Asia Society, Pacific Century Institute and China Policy Institute, and adjunct fellow at the Center on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He received his B.A., M.A. and Ph.D. in history from Yale University. He is currently writing a book on US-China relations in the 1950s.



Jong-dae Kim
Justice Party / Member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NA)

Kim, Jong-dae is currently a member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member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Floor Spokesperson of Justice Party, and the Head of the Foreign Affairs & Security Division in Justice Party. He previously served as an advisor to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in the 14th – 16th National Assembly; an expert member of the Presidential Transition Team's Defense Division for the 15th President Kim Dae-jung; Presidential Transition Team for the 16th President Roh Moo-hyun; an Administrative Official for Office of the National Defense Advisor in Presidential Office; an Innovation and Planning Official for Emergency Planning Committee in Prime Minister's office; a policy advisor to the Minister of Defense; a member of the Policy Development Committee for the Army and the Airforce Headquarters; a member of the Military Culture Reform Committee i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in Military Human Rights Center for Korea; a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in Peace Network and a chief editor of Monthly (Military Journal), (D&D Focus), (Defense21+).



Robert Carlin
Visiting Fellow, Stanford Un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Robert Carlin is a Visiting Fellow at Stanford University's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Both in and out of government, he has been closely following North Korea since 1974. From 2002–2006 Carlin was political advisor to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 a multinational consortium formed to carry out several key provisions of the 1994 US-DPRK Agreed Framework. From 1989–2002, he was chief of the Northeast Asia Division of the State Department's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For much of that period, he served concurrently as senior advisor to the chief US negotiator to US-DPRK talks, attending all of the major negotiations the US had with the DPRK during those years. From 1971–1988, he was an analyst with the CIA. Carlin has visited North Korea over 30 times. His last visit was in April 2017. In 2013, Carlin updated and revised Don Oberdorfer's indispensable contemporary history, *The Two Koreas*.



Zheng Jiyong
Director, Center for Korean Studies, Fudan
University

Gong Keyu is a senior researcher and deputy director in charge of North Korea nuclear issues at the Center for Asian-Pacific Studies, 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 (SIIS). Dr. Gong's research fields including Economic Cooperation of East Asia,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Sino-DPRK & Sino-ROK Relationship, etc. Dr. Gong has been a deputy director of Shanghai Luwan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in 2008, and a visiting fellow in CSIS, USA in 2010, and also a visiting fellow of International Scholar Exchange Fellowship (ISEF) program of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KFAS) in 2015. Her books including "The Institutional building of East Asia Economic Cooperation", "Contemporary Korean Politics". Dr. Gong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Politics at Renmin University of China in 1995, and received M.A. in International Relations at 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 in 2004, and Ph.D. in World Economic at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 in 2007.



Eun-sook Kim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un-sook Kim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he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got master and Ph. D. degrees from University of Tsukuba in Japan. She worked as a professor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ince 1989, and worked various positions: director of Museum of Education, director of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in Education, and chairman of Women Professor's Association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vice-chairman of Korean Federation of Women Professors, and chairman of Review Committee of History Curriculum. She wrote *Chinese Civilization and East Asia* (2006), and wrote jointly *High School World History* (2003), *Middle School History* (2011), and *Translation and Annotation of Nihon-Shoki* (1–3, 2013).



Masanobu Umeno
Vice President and Executive Director,
Joetsu University of Education

Umeno Masanobu is a Vice President and an Executive Director at Joetsu University of Education. He previously taught as a Professor at Joetsu University of Education and Kagoshima University. Masanobu has a Ph.D. in Education, with a concentration in History Education and the History of Colonial Education.



Fan Enshi
Associate Research Fellow, Institute of
Chinese Borderland Studies,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Enshi Fan is an associate research fellow and a deputy director of the Northeast and Northern Borderland Research Laboratory of the Institute of Chinese Borderland Studies of CASS. He got his bachelor degree of world history in History Department of Nankai University, and his master and Ph.D. of Chinese ancient history in the History Department of Peking University. Then, he did his post-doctoral research in the Institute of Chinese Ancient History in Zhejiang University. He focuses on studies on Northeast Borderland History and the history of nationality, and has published three scholarly monographs, more than 30 theses.



Yong-hyuk Yoon
Emeritus Professor, Kongju National
University

Yong-hyuk Yoon is an Emeritus Professor at Kongju National University. He graduated from Kongju National Teacher's College and acquired Master's and Doctorate's Degrees in Korea University. He worked as a professor in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and served various positions: Curator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Library Director, Dean of Graduate School, and Dean of Graduate School of Cultural Heritages. He also worked as the president in Hoseo History Academy and Korean Middle Age History Academy; national history book writer at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and as an adjunct professor at Kyushu University in Japan. He worked as a research professor at Tsukuba University in Japan for a year and as a research professor at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s for a year. Currently he is working as a member at Cultural Properties Committee in Chuncheongnam-do and Sejong-si and as a director at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He wrote his studies on Goryeo's History Resisting Mongolian Invasion (1991), Study on History and Culture of Chungnam (2009), Study on Baekje of Garube Jion (2010), Study on Goryeo-Mongolian War and Ganghwa Island Fortress (2011), Study on Sambyeolcho - History against Army Dictatorship Government and Mongolia, and towards the Ocean (2014), and Study on Korean Maritime History (2015).



Choong-yong Ahn
Chairman,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Choong-yong Ahn is currently the Chairman of the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KCCP) and the Chair of the Board at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He is also a chair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Chung-Ang University. Before taking his current post, he served as the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2006-2014), Chairman of the Presidential Regulatory Reform Committee (2010-2012), Chair of the APEC Economic Committee (2002-2005), and served as President of several academic societies in Korea including the Korea International Economics Association (2002-2005), 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 (2002-2005), and the Korea Econometric Society (2002-2005).



Dong-Joo Lee
Research Director,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KOSBI)

Dong-Joo Lee is currently the Head Director of the Research Division at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KOSBI). After graduating from the Hanyang University, he received his M.A. and Ph.D. at the Konkuk University, majoring in Business Administration. Currently, he is the member of the Business Committee in the Types of Businesses Suitable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 Department at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Inquiry Commission at Korea Technology and Information Promotion Agency for SMEs; Improvement of a System Task Force at Korea Fair Trade Commission; Self-Evaluation Committee at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Zhao Yupu
Director, Center for Northeast Asia Research, Shandong University

Zhao Yupu has taught at the Shandong University (Weihai) from 2004 and is currently the Head of the East Asia Research Center and Vice-President at the Shandong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in business management at the Hoseo University in Korea. Also, he served as the Head of Weihai Standardization Research Institute (1994-1998) and as the Deputy-Director, Weihai Economics and Technology Institute Borough Office (1999-2003).



Itsutomo Mitsui
Dean of Graduate School and Professor of Kaetsu University

Mitsui Itsutomo is currently the President of the Japanese Committee of International Council for Small Business (JICSB) and the Chairman of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Committee of Japan (ISBCJ). He was also the Former President of Japan Academy of Small Business Studies (JASBS) from 2008 to 2010. After Itsutomo completed a post-graduate degree at the Keio University, he became a professor at the Komazawa University from 1991 to 2001 and at the Yokohama National University from 2001 to 2011. Currently, he is a Professor Emeritus at the Yokohama National University as well as a Dean and Professor at the Kaetsu University Graduate School.



Byung-Min Ahn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Transport Institute

Dr. Byung Min Ahn is a Senior Research Fellow of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Research Group at Korea Transport Institute. He received his Ph.D. from Tsukuba University in Japan. He was a visiting professor at Tsukuba University, National Expert at UN ESCAP. He served on various advisory committees of the ROK government.



Sigon Kim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igon Kim has been a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Railroad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ince 2003. He is the president of The Public Transport Forum, which is approved b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Before becoming a professor, he worked for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as a head of Railway Research Division. His recent research topics are as follows: Eurasia railway network, multi-modal transfer center, and establishment of railway accident emergency response system. He graduated from the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Virginia Tech) with a doctor degree of Transportation Division in the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in 1990.



Song Xige
Vice President, China Weihai Harbor Company Ltd.

Song Xi Ge is currently the Deputy General Manager at the Weihai Port Group Co., Ltd. He studied construction management and graduated from the Nanjing Institute of Management Engineering. After graduation, he was assigned to the Weihai Port Authority Infrastructure Division, and served as the Deputy Chief engineer of the project construction headquarters, Weihai City Port Construction Promotion Committee Office Planning and Construction Section Chief, and Weihai Port Group Chief Engineer.



Hirofumi Arai
Director of Research Division/Senior
Research Fellow,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Hirofumi Arai is the Director of Research Division and a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ERINA). Before joining in ERINA in 1999, he worked in the Niigata prefectural government. Arai received his M.A. in engineering from the University of Tokyo in 1990. He is a member of Transport Expert Group of the Greater Tumen Initiative (GTI) and the Secretary General of Northeast Asia Gas and Pipeline Forum, an international NGO.



Tae-ho Kang
Head, Hankyoreh Peace Institute

Tae-Ho Kang received his B.A. in economic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worked as a researcher at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before joining The Hankyoreh in 1988. Since then, he covered extensively on North Korea and security-related issues of Korean Peninsula for more than 20 years.



Jae-Yeong Huh
President, Chungnam State University

Jae-Yeong Huh is currently the president of Chungnam State University. After acquiring Ph.D. in engineering from Osaka University, he worked as a professor of civil engineering at Daejeon University from 1989 to April 2017. He served as a regional president of Daejeon-Chungchung Office in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from 2012 to 2014. He is currently involved in many organizations, serving as a director of Kumkang River Vision Planning Committee and Korea Institute of Disaster & Safety; as a chairman of Daejeon's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as a co-chair of the Committee for Mutual Cooperation of K-water, and as a head of operation at Integrated Distribution Management Vision Committee, Ministry of Environment



Jung-ho Nam
Research Fellow, Korea Maritime Institute

Jung-ho Nam has been working as a researcher studying coastal planning at Korea Maritime Institute (KMI) since 1996. He received M.A. and B.A. in Oceanograph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t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at Dong University, he studied urban planning, especially in the area of environment planning, and received Ph.D. He served as the member of Prime Minister's Advisory Committee, National Commission on Coastal Management, National Commission on Land Use Regulation, and Nation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Also, he worked with PEMSEA, COBSEA, NOWPAP, and YSLME.



Jiang Yihang
Former Project Manager, UNDP/GEF
YSLME Project

Yihang Jiang is a physical oceanographer and an experienced high-level diplomat, with more than 25 years working experience in the United Nations. Jiang was the Project

Manager for the UNDP/GEF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Project, known as YSLME, for 7 years and worked in the UNEP/GEF South China Sea project for about 4 years. He started his career in the UN with the UNESCO-IOC, and was responsible for the regional co-operation in marine sciences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for over 11 years. He was involved in establishing the IOC Regional Office in Bangkok, and acted as the first staff of the Office.



Eiji Hamada
Professor, Shimonoseki City University

Eiji Hamada is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Economics at Shimonoseki City University in Japan. Professor Hamada taught at Nagasaki University as an Assistant Professor from 1984-1991. He also taught

at Tokyo University of Fisheries as an Associate Professor from 1992 to 1999. Professor Hamada received his Ph.D. in Agriculture at the University of Kyushu in 1987.



Woon-yul Oh
General Director at Aquaculture Policy
Bureau,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Woon-Yul Oh is the General Director at the Aquaculture Policy Bureau,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in Korea. After he graduated from th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where he majored in English literature, he went to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worked as the Public House Development Section Chief and as the Maritime Policy Section Chief at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t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e took the responsibility as the Operational Support Section Chief. In 2014 he became the Head of the Yeosu Oil Pollution Situation Control and Director of the Yeosu Regional Office of Maritime and Port Affairs. Also, he worked at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and Advisory Committee on State Affairs Planning.



Jae-Mook Park
President,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Jae-Mook Park is the President of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He received his Ph. D. in sociolog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had been a sociology professor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from 1981 to 2015 and held the chairs of Korean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 Sociology, Korean Association of NGO Studies, and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in succession. Most recently, he served as a co-representative of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Hyung-Nam Myung
Senior Researcher, ChungNam Institute

Hyung-Nam Myung received her Ph.D. in Environmental Health from th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he had worked as an air pollution control engineer in Han Il Chung Co., Ltd and a researcher in Citizens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CIES) and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he has engaged in environmental health researches as a senior researcher in ChungNam Institute. She has been interested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health,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welfare and published several journals related with those topics including "Role of local government for environmental health challenges: A case study of Chungnam", "Characteristics and the regional variation of meteorological disaster-attributed mortality in Korea", "Food Ingestion Factors of the Korean Exposure Factors Handbook".



Wang Li
Assistant Professor, Institute of Spatial
Planning & Regional Economy,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P.
R. China

Li Wang is a staff member at Institute of Spatial Planning & Regional Economy,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P. R. China. Her emphasis areas within her major are: sustainable development, regional development. So far, she has hosted and participated in more than 60 research projects covering most areas of China. She graduated from Chinese Academy of Sciences majoring in sustainable development.



Hiroaki Minoura
Department Head of Atmospheric Research
Department,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Hiroaki Minoura is currently the Head of the Atmospheric Research Department at the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Minoura previously worked as an Executive Engineer at the Toyota Research Institute of North America and conducted research at Toyota Central R&D Laboratories Inc. as a Senior Researcher and Chief Investigator. Minoura received his Ph.D. in the Solar-Terrestrial Environment Laboratory at Nagoya University.



Lim-Seok Chang
Director, Center for Comprehensive Air
Quality Forecast,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Lim-Seok Chang is the Director at the Center for Comprehensive Air Quality Forecast at the National Air Quality Forecasting Center in Korea. He received his B.A. in atmosphere science and Ph.D.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worked as a researcher at the Brookhaven National Lab, Korea from 2005 to 2007. Currently, he is the Atmospheric Environment LTP Secretary, GEMS project leader, and KORUS-AQ steering committee.



Myung-koo Kang
Direct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Myung-koo Kang has been teaching media and cultural studies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1987. He teaches Media and Cultural Studies and Social History of Media Technology. He has been leading two research teams: 1) "Creative Generations in East Asia" in which Chinese, Japanese and Korean researchers have worked together; 2) "Korean Firms Went to China: A Cultural History of Korean Investment." He has published a book, "Humin (訓民) and Enlightenment (啓蒙): A Historical Formation of Public Sphere in Korea." Another book, "Dreams and Un-dreams of Youth in East Asia" will be published soon.



Sung Kwan Lim
Head of Civil cultural communities Wind of Culture

Sung Kwan Lim is the Head of Wind of Culture, which is a civil cultural community. He was born in Incheon and graduated in painting at INHA University. He got a Master of Media and Communication from SUNGKONGHOE University in 2017. He had worked for social movements for a living culture from 1996. In 2005, He declared the consumer movement for the culture to change the poor cultural environments in region and promote communities and joined the founding members of the Wind of Culture. He believe that changing culture could change society as well individual lives and the culture is at the heart of efforts to tackle some of the key challenges facing the regional communities. He has been working for the change of 'living culture', which residents voluntarily participate in cultural activities and perform to meet their culture needs. Now, he is working as a consultant to establish the living cultural facilities nationwide as well Head of the Wind of culture. Also, he is studying and delivering lectures about the process of running the facilities and the role of living culture.



Fang Lei
Former Director of Songzhuang Art Center

Fang Lei is an ex-curator of Songzhuang Art Center at China and the founder and Chairman of Snowscape Culture and Art (SSA). Born in 1971, and now an important curator of contemporary art. She began her artistic and curatorial career in 1997. In 2005, Fang Lei established the internationally-known Ullens Center for Contemporary Art (UCCA). In 2012, she became curator of the Songzhuang Art Center, leaving the post in June 2017.



Noriaki Imai
Chairman, NPO Co. DxP

Noriaki Imai was born in Sapporo in 1985 and graduated from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 in 2010. Imai founded a voluntary association, Dream Possibility, in 2011 and established a non-profit organization, DxP in June, 2012.



Jongku Kim
Professor, Ewha College of Art and Design, Ewha Womans University

Jongku Kim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B.F.A) in 1988 and Chelsea College of Art and Design, London (M.F.A) in 1996. Kim won Grand Prize at Korea National Grand Art Competition (1990) and Kim Se-Jung Memorial Prize for Young Artists (2002) and won more special prizes. Kim participated P.S.-1 International Studio Program (MoMA), New York from 2002 to 2003. Kim has exhibited widely in Europe and Asia, including the Gwangju Biennale (2006), Re-Imagining Asia, Berlin (2007), and private exhibitions 19 times at Kim Chong Yung Museum, Seoul, Korea and Spencer Museum, Kansas City, USA. He is working as a professor at Ewha Womans University.



Ok-Sang Lim
Painter, President of World Script Institute

Ok-Sang Lim is the President of the World Script Institute. After graduating from the department of painting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worked as a professor at the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from 1979 to 1981 and at the Jeonju University from 1981 to 1992. He also served as the president of The Korean Art Association. Recently, he opened a solo exhibition titled 'The Wind Rises' in 2017 at the Gana Art Center and a group exhibition titled 'Eye and Mind of Korean Contemporary Art II: Reinstatement of Realism' in 2016 at the Gannainsa Art Center. He received various awards including Hak Won Art Award in 1985, Gana Art Award in 1992, Total Art Award in 1993, and DongA Play Award for Stage Design in 2004.



Misu Cho

Co-representative of Pullullim / former co-CEO of Peace Boat

Mi-Su Cho, was a member of Peace Boat from 2000 to 2012, in charge of program director of North & South Korea Cruise, Korea-Japan Joint Cruise and Peace Boat Global University. She graduated from MA in Inter-asia NGO Studies of Sunkonghoe University in 2014, has worked as a researcher in Hanshin University and as a secretariat in ARI. Currently, she is a co-representative of PULLULLIM, which organizes a Korea-Japan civil exchange through musicals.



Hyun Soo Kang

President of ChungNam Institute

Hyun Soo Kang is the President at the ChungNam Institute and a Professor at Joongbu University. He previously served as the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al Research and as a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ang received his Ph.D. in Public Administr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See Jung

President, Chungbuk Research Institute

Jung Cho-see, former professor of Cheongju University and of Bank of Korea's Chungbuk office, is currently the president of Chungbuk Research institute. Having acquired BA, MA, and PhD degree in Economics at Yonsei University, Korea, he worked as a researcher in department of Current Economic Issues in Research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y. In 1982 he worked as a professor of Economics in Cheongju University. He also worked as a visiting scholar at University of San Diego and SOAS University of London, respectively in 1993 and 2009. From 2006 and 2008 he was the director of Korean Economic Association.



Peng Jianqiang

Vice President, Hebei Academy of Social Sciences

Peng Jianqiang is the Vice-President of Hebei Academy of Social Sciences, lead researcher in rural economics, Dean of Urban and Rur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HASS. He is one of the leading experts of China's National High-Level Talents Special Support Program. He is also a selected consultant to Hebei Provincial Government and member of Financial and Economic Committee of the provincial People's Congress. His research interests focus on rural economy and rural development, regional economy and regional development, urbanization and urban-rural integration.



Wang Xingguo

Vice-director, Shandong Academy of Social Sciences

Wang Xingguo is currently the Vice-President and Professor of Shandong Academy of Social Sciences; Vice-President of National Social Science and Agricultural Economics Council; economy post expert of Shandong modern agriculture system industry; Executive Director of Shandong Agriculture Society; Executive Director of Shandong Economic Society; Vice-President of Shandong Agricultural Economic Society; Executive Director of Shandong Rural Reform and Development Research Society. In recent years, he has published more than 30 papers in newspapers and periodicals above the provincial level, more than 10 academic writings, undertaken 2 National Social Science Foundation Projects, and 2 Provincial Social Science Foundation Projects. He also won first prize, second prize and third prizes in Shandong's Outstanding Achievements of Social Sciences.



Guo Yiyong

Division Director, Foreig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Guizhou Academy of Social Sciences

Gou YiYong is the Director of institute of Foreign Economic Studies, GuiZhou Academy of Social Sciences. Professor Gou is honored as the 'talents of Theory' by Gui Zhou provincial cultural propaganda department. Professor Gou has been conducting research continuously in regional economics, public economics and relating policies and measures. His main research achievements include 14 published academic books (11 of them are co-authored) and more than 40 published academic papers. Professor Gou has hosted more than 50 projects and programs. He has also drafted more than 30 files of provincial, municipal (state) and county-level government's documents.



Da Zhigang

Director Researcher, Institute of Northeast Asian Studies, Heilongjiang Provincial Academy of Social Sciences

Da Zhigang is the director and researcher of Northeast Asian Institute of Heilongjiang Academy of Social Sciences. His research interests are Northeast Asian regional economy; Japan, South Korea and Korean Peninsula studies. He has wrote, compiled, translated and edited more than 20 books. More than 200 articles of papers, research reports, reviews, and research summarizes were published at home and abroad, more than 100 articles of academic papers/reviews were published in "Guangming Daily", "Global Times", "Social Science Weekly" published a variety of academic and commentary articles more than 100, a total of about 3 million words.



Ilji Cheong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Human Habitat, Prefectural University of Kumamoto

Ilji Cheong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department of Human Habitat in Prefectural University of Kumamoto. Her major is urban planning and Machizukuri. She has studied about revitalization in local area. The theme is various so that there is not only streetscape design but to Compact city and vacant land design. For example, her PhD's theme is about Ecomuseum which use local memory and local heritages based on various stories. Most of her research is based on practice and local voices. Recently, she started to research post-earthquake town reconstruction in shrinking city.